김진영 < 소설들 혹은 봉인된 혀들> 3 강

R. 가리: '자기 앞의 생'

"나는 나에게 늘 전혀 모르는 사람 (der Andere) 이었다"

"나는 나 자신에게는 별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에게는 훌륭한 자료다. "

"드골은 나에게 약자들에 대한 이름이다. 아무 것도 할 수없는 무력함 속에서도 그러나 no 라고 말하는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다. 정치적인 드골주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": [하밀 할아버지가 코란과 착각하는 위고의 '레 미제라블']

"문학의 힘이. 인간 안에 존재하는 저 랭보적인 것이, 완전히 붕괴 당하면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식인종들이 되고 집단 학살의 범죄자가 되는 걸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"

"오늘 날 문학은 '황금의 게토 (der goldene Gehtto)' 안에 갇혀 있다. 거기서 그들은 아래로 하강하지도, 위로 상승하지도 못하는 채 제 살을 깎아 먹고 있을 뿐이다. 그러나 문학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저 팅 빈 현실의 옆구리 (Flanke der Realitaet) 로 들어가야 한다 (거기서만 centering 이 가능하다). 그리고 그건 '그런 건 없다'라는 질병으로 중독된 상처를 열어 젖혀야 한다 (Aufreissen eines von Abwesenheit vergifteten Wunde). "

"문화가 더는 윤리적 힘을 지니지 못할 때, 문학은 그 비윤리적인 문화를 전복 시키는 일이다"

[오늘 날 예술이란 무엇인가. 그건 양극성의 전선을 구축하는 일이다. , 오늘 날 미쳐가고 있는 정치, 건력, 경제, 문화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일, 그들만큼이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광기의 바리케이트를 치는 일, 그럼으로써 저들의 광기에 맞서는 또 하나의 광기를 발견하고 구축하는 일,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저들만의 광기의 세상으로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, 이것이 오늘 날 예술이 해야 하는 일, 약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.]

"생에게서 의미를 요구하면 안된다. 의미를 주어야 한다. 생을 둘러 싼 텅 비임은 그 텅

비임을 가득 채우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거부다. 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빈 손으로 다가온다. 그래서 생은 모험을 필요로 한다. 그 모험을 통해서만, 우리를 통해서만 생은 풍부해지고 변신하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다. "

"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지만 어딘가에 제일 먼저 가 있는 사람들, 그들이 아방가르드적 사람들이다. "

"애국주의는 자기와 동질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이다. 민족주의는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미움이다 (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미움 없이 자기 것들을 사랑하기) "

"대홍수가 또 온다면, 그때 신은 물이 아니라 종이를 사용할 것이다"

"어떤 이들은 곰곰이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 한다.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한다. "

" 우리는 정말, 무얼 얻어낼 수 있는지 또는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지, 그런 생각이 없이, 그저 존재하는 자연 그 자체, 저 생생한 자유 자체를 존경할 수는 없는 걸까? "

"약한 것들에 대한 관용과 존경, 폭력과 억압에 대한 혐오감, 논리와 이데올로기보다 감성과 부드러움을 더 높은 자리에 놓기, 그런 삶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? "

. . . . . .

"모하메드야, 너를 낳아준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너 자신뿐이란다" (4 6)
"언젠가는 나도 진짜 책을 한권 쓸 거예요. 모든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책 말예요. " (1 7 1)

"그들은 우리를 독일로 데려갈 거야. 이제 걱정할 게 없어.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까. " (1 8 3)
[먼 곳의 트라우마. 상처 받은 먼 곳. 이 상처는 속아서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던 마담 로자만의 상처가 아니다. 그건 모든 생의 상처다.]

"로자 아줌마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짜 서류들

만을 가지고 있었다." (189)

"나는 지금처럼 아줌마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. 그녀는 늙고 못 생겼으며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으니까." (190)

"나는 로자 아줌마가 창녀였으며,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왔고, 창녀의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일을 해 왔다고 말했다." (241)

"선생님,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, 세상에는 너무 어려서 못할 일 같은 건 없어요." (267):
[로자 아줌마와 모모는 같은 나이다]

"나는 절대로 정상은 안 될거예요. 정상이라는 작자들은 모두가 비열한 인간들 뿐이거든요. 나는 정상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" (268)

"살아있는 것들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" (306)